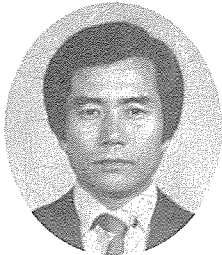


# 물 리 치 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 ACPT 총회 한국개최를 맞으며



국제이사 표성봉  
(연세의료원 재활의학과)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현상들 속에서 정의사회구현의 일면을 담당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대신코저 합니다.

국제이사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맡고보니 두어개가 놀리는듯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20년의 성숙된 PT협회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며 크게 자라 왔나 하는 생각과, 현실속에서 과거 임원들과 일을 하면서 무척이나 어려웠던 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크고 작은 국제 대회들이 그간 한국에서 치루어졌고또 같이 참여도 해 보았지만 이번 ACPT 총회 한국 개최야 말로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회장님이하 여러 임원들의 바램이며 또 회원 여러분의 바램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모든 회원은 주인 의식 속에서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 자신이 협회요, 회원들 자신의 ACPT 라는 관념 가운데 참여 의식을

회원 한 사람이 나하나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참을 하려 한다면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1600명전체회원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원 전체가 적극 참여 하려 할때는 참으로 성대한 ACPT 총회가 되며, 한국 PT의 단결된 발전상을 아세아와 세계에 인식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서로 협조하는 상부상조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협회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회원 각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PT협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직장과 가정과 사회속에서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중에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중에 조금이라도 협회와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어 질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면, 그것은 회원 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의 요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원 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뭉치는 협회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가 협회를 위하는 마음은 다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함께 이해하고 도와주며 합심하여 뭉친다면 ACPT 뿐만아니라 WCPT도 어렵지 않게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만들면 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회원 상호 간에 도와주고 이해하며 동반자적 마음과 실천을 수행할때 우리 PT 협회는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이해하고 생각 속에서 서로 도우려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으며 협심하는 헌신적 봉사자의 실천적 행동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힘든 일도 기쁨과 보람을 갖고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다소 실행상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포용력있는 넓은 이해와 협심협동의 자세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들 셋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화살 한개씩을 나누어주고 부러뜨리라고 하였을때는 부러졌으나 여러개를 주었을때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워 주었다는 옛 교훈이 생각납니다. 협회는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회원 전체가 뭉쳐야만 비로소 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회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협회가 부강하고 잘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협회와 귀 회원에게 무궁한 발전과 보람된 도약의 내일을 위하여 열과성을 가지고 마음을 일치하여 힘껏 일할것을 임원의 한 사람으로 약속드리며 회원님들께서는 협회에서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기보다는 협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시고 협회에 극히 사소한 도움 일지라도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 하였고,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있듯이 회원 여러분의 개척자적 희생정신의 큰 한방울의 결실은 한방울의 빗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PT 협회도 세계적 인 PT협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협회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들께 성숙된 협회의 면모를 유지하고 발전 시키는데, 주인 의식적인 적극 참여와 서로 협조하는 상부상조의 생활화 실천과 협심하여 뭉치는 협회 회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접착 반창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 1. 경기중 손상에 방지(Prevent of Athletic Injuries)

손상을 방지하는 것은 경기자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하여 누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경기자(선수)의 건강관리에는 육체적인 상태(일반적으로 질병과 관련이 있는), 기분(정신상태), 매일 매일의 훈련등이 속할 것이다.

참고 : Daily Exercises-Rope Jumping, Step bench, Side Bender, Shoulder Hang, Hurdle Spread, Groin Stretch, Bicycle Ride, Leg Flexing, Wood Chopper, push-up, Belly Rocker, Trunk Twister, All Fours, Sit Up & Paw Dirt, Mountain Climbing, Leg-Back Stretch, Toe & Heel Dance, Sacroiliac Stretch, Leg Stretch, High Step Dive etc.

## 2. 이 방법의 적용

이점 : 쉽고 간단하다.

손상된 부위를 지지하고 압박하여 준다.

손상의 재발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여 준다.

원리 :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피부를 깨끗이하고 면도를 하여주어야 한다.

잘 접착하는 반창고를 사용하여야하고 (안식향으로 착색된것을 사용한다.)

반창고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붙여야 한다.

경기가 끝난후 즉시 tape을 제거한다.

## 3. 실 기

가) Louisiana Ankle Wrap: 1 inch

1 인치의 폭을 가진 bandage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순서로 하여 7번째에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한다. 발 전체를 감으면 안되고, 추름이 생기지 않게한다.

과도한 족근골의 유동을 방지하고, 발목이 뺄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나) Gibney Taping Procedure for Ankle Stability.

그림 1, 2-Start.

3, 4-Direct Gibney strapping.

5, 6-Add the heel lock.

그림 5는 외번(eversion)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림 6은 내번(inversion)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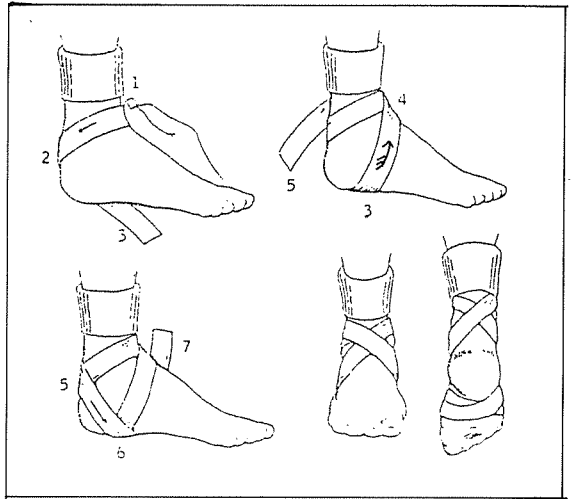


그림 1. Louisiana Ankle Wr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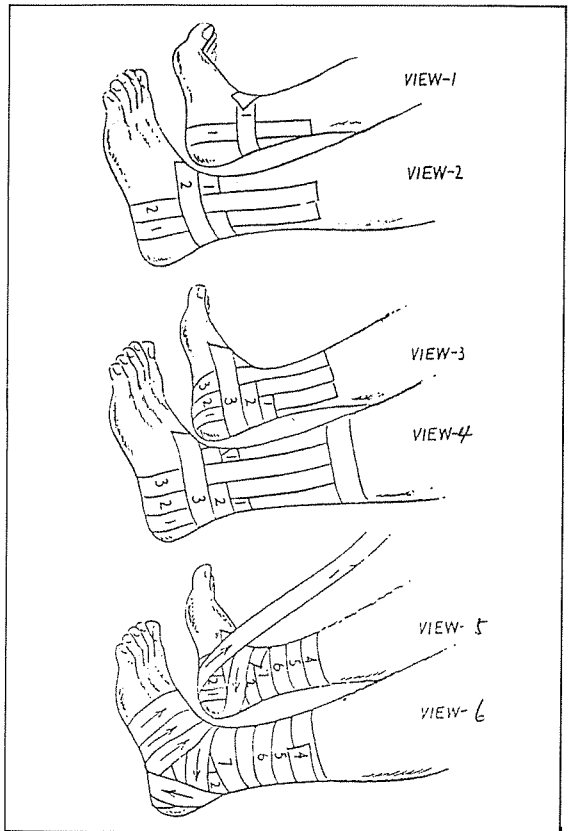


그림 2. Gibney Strapping

위의 두가지를 합쳐서 사용하면, 보다잘 고정되고 유동을 적게할 수 있다.

다) Typical Gibney Str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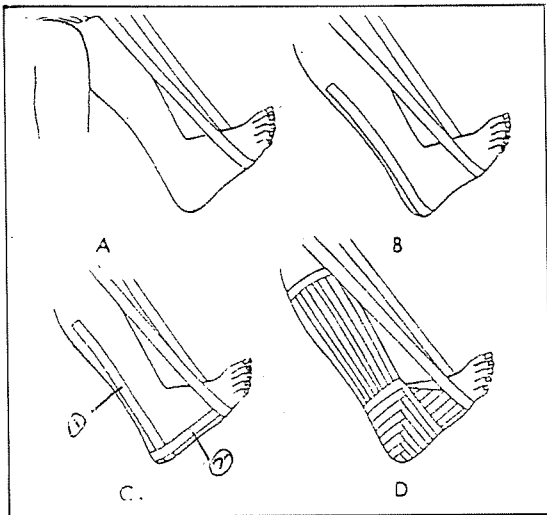


그림 3. Typical Gibney Strapping.

- A. 환자가 천(목)끈으로 발목이 90도가 되도록 그림과 같이 잡고 있게한다.  
발이 내번 혹은 외번되게 하는 것은 뺨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
- B. 처음의 스트립(1 inch adhesive tape)은 종다리(calf)를 따라붙이고, 발 뒷꿈치를 지나 반대쪽으로 올라가며 붙인다.
- C. 다른 스트립은 첫째 발가락을 따라 발 뒷꿈치까지 양측에 붙여 5 번째 발가락 부분까지 붙인다.
- D. B, C, 를 교대로 반복하여 그림과 같이 완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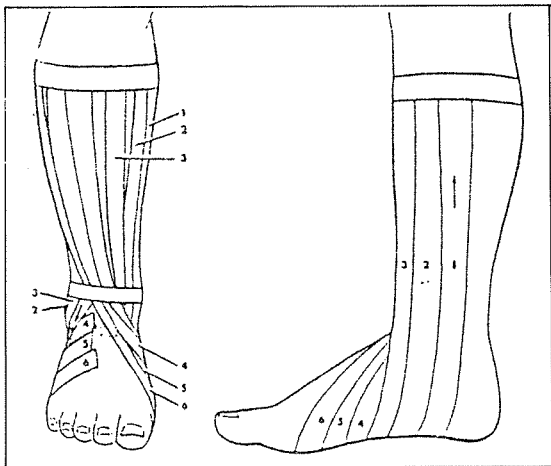


그림 4. Classical Arch Strapping

라) Adhesive Strapping for Tibialis Posterior.

1 인치의 반창고틀을 사용하여 1 번은 외측 복사뼈 바로위에서 시작하여 발뒷꿈치를 지나서 발의 내측으로 올라가 종다리의 볼록한 곳 바로위에서 멈춘다.

2,3,4 번째 스트립은 1 번과 같이 따라서 붙이고, 4,6,7 번은 그림 4 와 같이 발목앞부분을 지나서 꼬여 돌려붙여 다리의 외측 앞부분에 붙인다.

마) Strapping for the Achilles Tendon

배측(plantar) 굴곡이되는 발목에 사용하는 반창고 방법으로, 2 인치의 스트립을 발바닥의 발가락 부위부터 시작하여 그림 5 와 같이 붙이고 나머지는 1 인치의 반창고스트립을 사용하여 처음의 반창고틀을 보호하고 지지하는데 도움이되도록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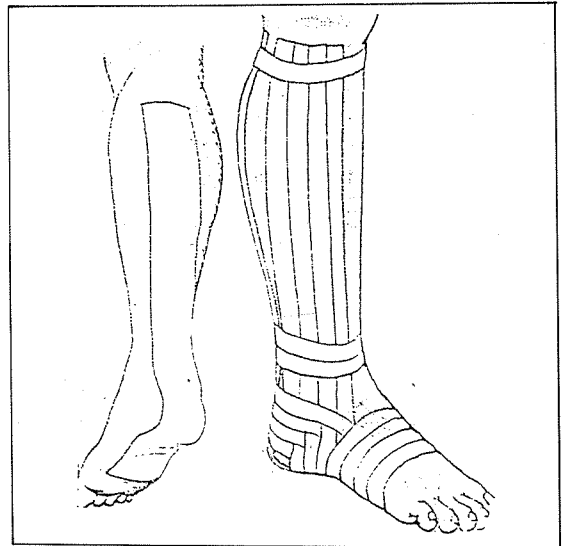


그림 5. Strapping for the Achilles Te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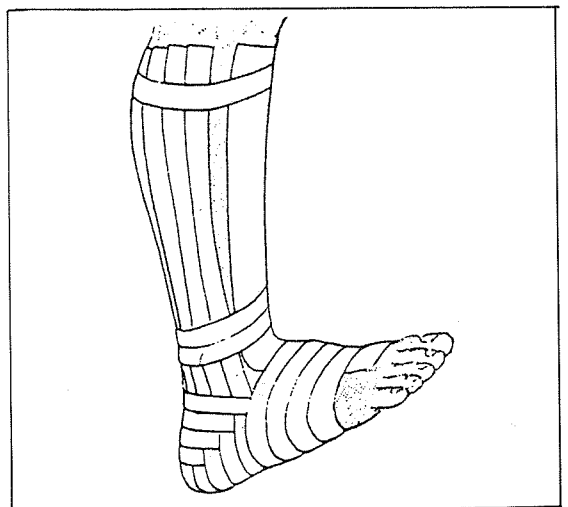


그림 6. Adhesive Strapping for the Tibialis Anterior.

바) Strapping for the Dorsiflexors(Tibialis Anterior).

그림 6 과 같이 과도하게 등측굴곡을 해놓으면 뒤 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정도의 자세위치 (90 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Adhesive Strapping for the Metatars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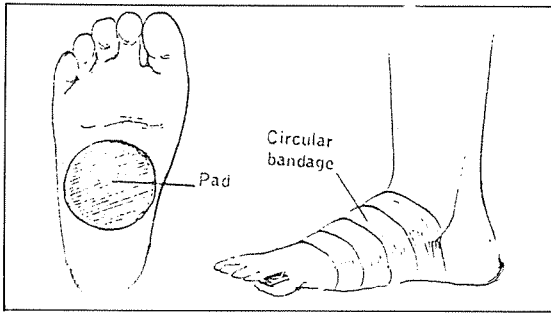


그림 7. Strapping for the Metatarsal Area.

야) Strapping the Knee to support the Lateral Collateral Ligaments (X)

십자스트립이 중간선을 지나가야 한다. 이것은 경골과 비골의 회전을 방지하고 내측과 외측에 붙여 최대의 지지를 하도록 그림과 같이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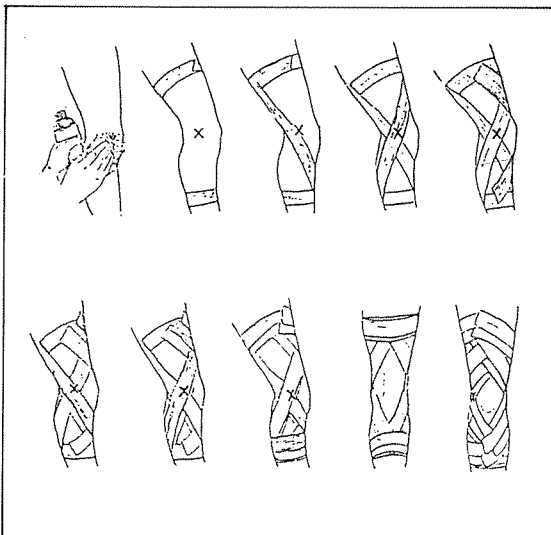


그림 8. Strapping the Knee to support the Lateral Collateral Ligaments.

자) Strapping of the Knee to prevent Hyperextension.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붙이는데, 이때 선수(환자)의 발뒷꿈치 밑에 3-4 인치의 받침을 받혀주면 쉽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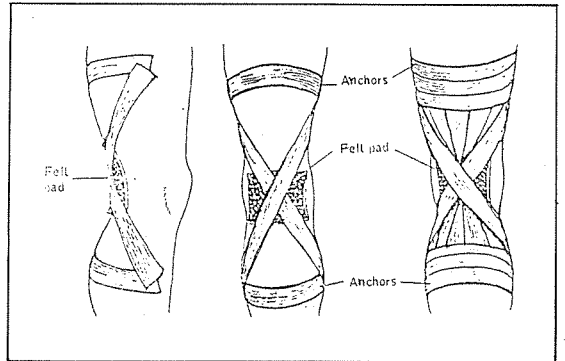


그림 9. Strapping of the Knee to Prevent Hyperextension.

註) 상기 원고는 1983. 6. 30 전북지부에서 보수교육을 한 자료를 편집부에서 편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자료제공은 원광대학 물리치료과.

### 일(事)과 시간(時間)

하루를 지내는데 있어서 8시간의 직장근무와 (노동법에 의한)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밥을먹는시간, 순수히 근무에 열중하는 것 이외의 일 일사이의 짧, 짧은 시간동안의 휴식,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 고민을 하고있는 시간, 잡담하고 보내는 시간, 담배를 피우는 시간 등... 우리는 하루의 시간중에서 이런저런 시간을 무던히도 잘보내고 있다. 무던히 잘보낸다는 표현 보다는 그저 그렇게 흘러 보내는 시간이라고 해야겠다.

무의미한 순간순간을 보내는것 이외에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일들, 이를테면 휴가일정이나 개인적 공적인 일들의 계획-혹은 무슨시간이든 닦치는대로 그렇게 보내든가 아뭏튼 우린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고 너무도 짝짜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어이없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여유있게 보내는 시간이 적은것 같다.

특히 현대인-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스케줄과 약속된 시간, 일들속에 묻혀지는것 같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TV나 신문을 보고 잠자리에 들고, 도무지 그사람에게 무계획하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이라곤 없는듯 싶다. (물론 할일없이 빈둥빈둥 논다거나 짜여진 계획없이무작정 지내는것도 문제지만) 실재없이 시간 쪼개기에 강요당하며 그 시간속을 바쁘게 뛰어야하고 계획된 일이나 부과된 시간의 채움등으로 어찌보면 인간은 자기가 시간을 유용 하는것이 아니라 시간의 뻑뻑한 일정속에 묶여 있는것 같기도 하다.

( 7 면에 계속 )

## 한국 원호병원은.....

한국원호복지공단 산하의 원호병원은 380 bed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원호병원이라는 특수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두 곳이며, 광주에도 세울 예정이다. 원호대상자란, 국가유공상이군경 으로서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 하여 우리병원은 독립유공자, 월남참전용사, 6·25 상이군인등 전쟁을 치를 분들이다. 이분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직원 모두의 자세는 친절, 겸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이다. 복지국가건설의 한 분야로써,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원호병원의 part 중 재활의료부는 많은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의지창(prosthetic center), 사회사업과 언어치료(speech therapy), 그리고 P.T. 분야로써는 thermal thrapy Room, hydrotherapy Room, Exercise Room, Occupationnal Room 으로 세분화 되어있고, 최근에 도입한 각종 최신 장비가 갖추어져있다. 또한 원호병원의 간판(?) 역할을 맡고 있는 곳도 재활의료부이다. 병원내에서 재활분야(R. M. part) 는, 심한 후유증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상이군경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년 또는 수십년간 재활의 목표아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활의학을 담당하는 직원과의 유대감이란, 생활중의 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대 물리요법과 1회졸업생이신 이상빈 실장님 이하 심정걸선생, 나영길선생, 경봉수선생, 박태화선생, 이희선선생, 이왕순선생, O. T.를 맡은 김혜순선생과 aid nurse 를 포함해 9 명이다. 또한 재활의학을 전공하신 박영주 과장님과 레지던트 강창희선생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원호병원은 직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감 및 협조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무하는 곳은 서로서로 연결 되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른 part로 옮겨 간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타성에 젓기 쉬운 치료방법을 항상 연구,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teatime 을 이용해서 study 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최신장비, 과학적 system 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서로 의논하고 환자는 치료사가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 어느정도 치료의 효과는 얻을수 있다고 사려된다. 이에 준하여 물리치료사의 꾸준한 연구생활 역시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재활의학의 한 분야를 맡은 P. T. 로써 환자를 위하여 참된 치료를 행함은 물론이지만, 물리치료사 개인적인 생활면에서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여러가지 점이 요구된다. 쾌적한 실내환경, 서로 존경하는 생활습관, 각자의 취미생활을 예를 들수 있

는데, 원호병원 재활의학과 만큼 요구사항이 많은 직장도 드물것이다. 병원 자체에서도, 낚시회, 등산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여러개의 상호연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원호병원 내의 의요기사들은 항상 단결하여 타 직종과 같은 어개를 나란히 하고 있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원호병원을 알고자 하고, 좋은 고견이 있다면 환자나 P. T. 식구 모두에게 유리직원 모두가 열려진 마음으로 맞이 할것을 확인하며, 물리치료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 맞이 하고 우리 P. T. 가족 역시 건강찬 마음과 정신으로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시길 빕니다. 이상 입니다.

## 대한스포츠의학회

수신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귀중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민체력 향상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스포츠 과학화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의학 진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낙후되어 있는 스포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 및 국민체육 진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가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락처 : 서울 성동구 홍익동 10번지 국립경찰병원 내 대한스포츠 의학회 사무실

\*전화 : 294-9090 (직통)  
292-9171 (교환)

대한스포츠의학회장 김 집

## 춧 불

석상령

몸을 태운다.  
뜨거운 임금을 내면서  
누구를 위하여...

몸이 녹아  
허연살이 뚝뚝 떨어질수록  
불타는 가슴은 더욱 붉게만 타오른다.  
마지막 살덩이마저  
아낌없이 다 태우고  
꺼져가는 가슴은 아무말도 없이  
시꺼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스르시 사라져 간다.  
아무 미련도 없이.....

# 예 (藝)

## 이 정 려

너는 나이고 싶었기에  
 널 벗기움에 있는 새로움  
 그 새로움은 집념의 아들  
 그리고 환희의 휴식처임을...  
 너는 나이고 싶었기에  
 절반은 숨어 있어야 했다.

### — 강남성모병원 —

강서 성모병원에 근무하시는 이정례 회원께서 처녀작 「나이고 싶었기에」란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유명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서출판(주) 바다 정가 3,000원

### — 북부지부 소식 —

#### ◎ '84년도 제 1차 임원및 대의원 회의

일시 : 1984년 3월 28일 18:00

장소 :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내용 : 지부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차기 지부장 및 총무선출에 관한 사항

춘계 야유회에 관한 사항

참석자 : 지부장 임 인 혁(서울대학병원)

총 무 최 재 청(서울대학병원)

대의원 이 재 학(고려보건전문대학)

방 수 옥(고려병원)

유 인 규(고대부속병원)

박 옥 화(한국병원)

협보책임자 황 현 숙(한국병원)

홍 성 렬(학교건강관리소)

### — 북부지부 춘계 야유회 가져... —

북부지부(지부장 임인혁)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부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단합대회를 겸한 춘계야유회를 가졌다.

관광버스를 대절 한 이날 야유회에는 4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4월의 경치를 마음껏 흥취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오전 9시에 서울대병원을 출발하여 부여-계룡산갑사-백제무령왕릉을 거치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회원들간의 자발적인 협조와 질서를 지켜 예정된시간 20시 20분에 무사히 도착할수 있었다.

최재청 총무의 사회로 차내에서 진행된 노래자랑에서는 저마다의 숨은실력을 발휘하였는데 한국병원에 근무하는 정영옥 회원의 열창은 앵콜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정진우 협회장님과 이재학교수님의 가족이 참석하였으며 부부동반을 한 회원도 있어 더욱더 자리를 빛내주었다.

### — 춘천지부소식 —

84년도 춘천지부 회원 모임및 연수 : 3월 20일(화요일), 장소(태동원)

- |                    |     |
|--------------------|-----|
| 참가인원 : (346) 춘천의료원 | 김기호 |
| (536) 인 성 병 원      | 양승순 |
| (983) 동 원 학 교      | 석상령 |
| (985) 맹 아 학 교      | 이상경 |
| (1050) 녹십자병원       | 이귀숙 |
| (1413) 강태영정형외과     | 박은숙 |
| (621)              | 구화숙 |
| (1478)             | 박영대 |

- 회의내용 : 1. 춘천지부회원 정기모임 : 년간 6회  
 2. 임원선출 : 춘천분회장 인성병원 양승순  
 춘천분회총무 동원학교 석상령  
 3. 병원과 특수학교간의 긴밀한 연락으로 서로의 보안점및 취업알선을 위한 연수 강화하기로 함.  
 4. 보수교육을 통한 지식습득과 임상에서의 치료방법및 개선점 협의하기로 함.  
 5. 강원도 내의 타지부와의 서신왕래를 통해 서로의 상황파악을하기로 함.

병원이동상황 : 유형근(영월의료원-강릉 현대병원) : 강원지부에서

- 취업상황 : 계성 농야학교(김정영 : 요육 실기교사)  
 -84년 3월 27일자  
 남강애육원(천정미 : 물리치료사)  
 -84년 4월 10일자

이상으로 춘천지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항상 바쁘신중에도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 서울 동부지부 소식 —

(회원동정)

#### — 결혼 —

심재식(위정일 외과) : 결혼희관, 4월 22일 12시

강명혜(성바오로병원) : 서대문 미동국민학교 앞

동부지부 총무 노라노 예식장 1시

#### — 전출자 —

김미정(1447) 동부지부에서 북부지부로 이동

(새한병원 취업)

— 서울 동부지부 소식 —

서울동부지부에서는 84년 3월 28일 오후 6시에 서울 위생병원에서 64명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강사에는 현재 동부지부 회장이며 위생병원에 근무하시는 양택용 선생님이 BELL Palsy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었다.

올해 10월에는 동부지부 회장및 임원선출이 있을 예정인데 동부지부 발전을 위해 유능한분들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 결 혼 —

강명혜 (성바로병원) 서대문 노라노 예식장

5월 6일 1:00

동부지부협보책임자 박 승 만

— 충청지부 소식 —

축

결 혼

충청지부 협보책임자 (대전선병원)

김 호 봉 4. 28(토) 12시 기독교연합 봉사회관(2층)

에덴예식장

— 부산 및 경남지부 소식 —

제 1 차 보수교육 개최.

김영준박사(김영준 정형외과원장) 의「X- 선판독법」이란 제목으로 지난 3월31일경 성분도 병원에서 제 1 차 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김영준박사의 X- 선 판독에 관한 강의는 물리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이었으며, 회원들의 많은 참석이 있었다.

보이타 진단과치료코스 이수자 명단

성 명	근 무 처	전화번호
정진우	서울대학병원	7601-2562
유천심	삼육재활원 694-6920	878-8123
현 숙	삼육재활원 725-4175	878-8123
주경애	연세의료원(영동병원)	556-2628
표성봉	연세의료원(신 촌)	392-0161
임희숙	연세의료원(신 촌)	392-0161
노종실	장애자복지관 445-2951	484-3171~3
오현의	장애자복지관 482-1484	484-3171~3
전은실	장애자복지관	484-3171~3
김현정	성모어린이집	829-6463
정귀자	강남성모병원 794-7002	533-3200
이영태	명동성모병원 302-7185	771-76
장미리	성모어린이집 724-0866	829-6463
박명숙	성모어린이집 914-5599	829-6463
김순옥	포항성모병원	252-5419
(세시리아)		
윤범철	고대병원	762-5111
윤알미	성모어린이집	829-6463
이비탈리스	의료부부장수녀님 서울장애자복지관	484-3171~3

1984년 3월19일 부터 보이타의 진단 및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을 성모병원과 독일문화원 후원으로 개최된 제 3 차 보이타 교육을 명일동에 소재 하고 있는 장애자 복지회관에서 1984년 3월19일부터 4월19일까지 3주간에 걸쳐 17 명의 물리치료사가 이수 하였으며 그 명단은 상기와 같다.



( 4 면에서 계속 )

사람이 시간을 잘 유용할 수 있다는것, 일 이외의 시간을 선행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것 같다.

「노자의 말씀에 無用之用이란 말이 있는데 이말은 아무 쓸모없는것 같은 것이 오히려 크게 소용이 있다는이다.

여하튼 우리 유용(有用)의 용(用)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용(無用)의 용(用)은 잘모르고 있는듯 하다. 결국 우리 무위자연(無爲自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안중문 교수의 노자「無用之用」중-

그말이 얼마나 현실적 감각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시간의 여유를 잃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그여가의 선용도 너무 선용에 집착한 나머지 의도성이 짙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선용이 아닌 시간속에 묶이는 인위적 用이 되고 말것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계획에서 없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딱딱한 스케줄 속에서도 한가한 시간을 즐긴다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가? (빌딩숲속에서 작은 녹지를 가진것 같은...) "인간은 한가하되 나태하지 말아야하고 여유가 있되 시간적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경희의료원 한방물리치료과 구 연엽

# VOLUME TWELVE OF THE PHYSICAL MEDICINE LIBRARY

## contributors

MARGARET J. CLIPPER  
 B. STANLEY COHEN  
 NOBLE J. DAVID  
 WILLIAM J. ERDMAN, II  
 MURRAY M. FREED  
 FRITZ FRIEDLAND  
 JEROME W. GERSTEN  
 JEAN-PIERRE HELD  
 HERMAN L. KAMENETZ  
 FREDERIC J. KOTTKE  
 LEWIS L. LEVY  
 W. T. LIBERSON  
 SIDNEY LICHT  
 WILLIAM F. McCORMICK  
 MARTHA TAYLOR SARNO  
 NANCY S. WAITE

- I. ELECTRODIAGNOSIS and ELECTROMYOGRAPHY second edition
- II. THERAPEUTIC HEAT and COLD second edition
- III. THERAPEUTIC EXERCISE second edition
- IV. THERAPEUTIC ELECTRICITY and ULTRAVIOLET RADIATION second edition
- V. MASSAGE, MANIPULATION and TRACTION
- VI. WORLD DIRECTORY of PHYSICAL MEDICINE SPECIALISTS
- VII. MEDICAL HYDROLOGY
- VIII. MEDICAL CLIMATOLOGY
- IX. ORTHOTICS etcetera
- X. REHABILITATION and MEDICINE
- XI. ARTHRITIS and PHYSICAL MEDICINE
- XII. STROKE: and its REHABILITATION  
 GALVANI's COMMENTARY on THE EFFECTS OF ELECTRICITY  
 ASCLEPIADES' LIFE and WRITINGS  
 MENDEZ' BOOK on CORPORAL EXERCISE  
 TISSOT's MEDICINAL and SURGICAL GYMNASTICS

ELIZABETH LICHT, Publisher

전질가 : ₩ 120,000

# PAIN SERIES

9 Vols ₩ 25,000

## 가나안문화사

☎ 720-9126



# 三佑洋行

(의료기 및 건강기 수입 · 제조 판매)

TEL. 741-0831 ~ 2

代表 裴昇鶴



P.K.Morgan Ltd.  
Pulmonary Function



NONIUS  
DELFT



CYBEX  
A DIVISION OF LUMEX INC.

# CADWELL

## EMG Machine

물리치료기구 제작 재활기구 오파 및 수입판매

## 새한販賣商社

### 金東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31

醫療器供給會館 401號

電話 762-5659 · 763-468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신한병원내)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시험회

TEL. 725-6218